



우정의 선교, 새로운 한·일 지역교회 협력의 모델: 2011.3.11 후쿠시마(福島) 3대 재난 구조 협력이 가져다 준 귀중한 열매

㉞ 박수환 (리전트 컬리지 마켓플레이스 연구소 협력 연구원)



이 성화는 1597년의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봉헌된 것으로 화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 현재 마카오 소재 성바울 성당의 유적지 박물관에 있는 복사본(원본은 19세기 화제로 유실)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사진 제공: 박수환)



6_worldview



1. 아주 특별한 친구들의 한국 방문

2013년 1월 21일 월요일은 몇 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날이었다. 영하 10도를 밀도는 매서운 바람은 나의 소중한 일본인 네 친구에게 한국을 방문한 이 날을 각인시킬 만큼 매서웠다.

이들 네 명의 친구들을 소개하자면, 나와는 1995년부터 절친한 친구이자 방글라데시 선교의 선배인 야나기사와 미도리, 일본 CCC, 일본 گیا대책을 통하여 지난 30여 년간 일본교회 교육에 헌신해 오신 간다 예수케 목사님,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젊은 30대 청년 진나이 순과 그의 아내 준코이다. 이들은 한국 DNA 협의회가 주최한 비전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한국 DNA 운동 10년의 경험과 열매를 배워 가기 위해 지난 1월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미도리, 순, 간다 목사님, 세 사람은 3년 전인 2010년 Friends with the Voiceless International(이하 FVI)라는 새로운 단체를 세워 국제 DNA(Disciple Nations Alliance) 운동의 일본 협력기관으로 일본교회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전인적 사역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헌신하였다. FVI는 일본의 작은 교회들이 일본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도록 훈련하고 네트워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히 2011년 3월 11일에 지진과 쓰나미에 원전 사고까지 겹친 3대 재난을 겪은 후쿠시마에 어느 누구도 진입하기 꺼려할 때에 재난 구조에 가장 먼저 뛰어든 기독교 단체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3대 재난은 한국이 방사능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통해 연일 보도되면

서 일본을 공포의 대상, 피해야 할 저주의 땅의 이미지로 낙인찍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FVI는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후쿠시마 재난 구조사역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 중 한국교회는 오히려 일본 선교에 대한 아주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정의 선교”, 즉 선교의 시작은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요 15:13)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마 28:19-20)의 성취라는 것이다.



간다 목사님과 미도리와 순 부부를 맞이하는 내 머리 속에는 지난 2년 동안 후쿠시마를 다섯 차례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베풀어준 따뜻한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만감이 교차하였다. 특별히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디딘 날은 2011년 4월 11일로, 재난 후 꼭 한 달이 되던 날이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대 위기 수준임을 인정하고, 2차대전 일본 패망 이후 일본 최대의 국가적인 재난으로 선포했으며, 도쿄 전력 임원들이 머리 숙여 사죄하는 장면이 매시간뉴스에서 다뤄졌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 서울에서는 봄비가 내릴 때 마다 초등학교들은 비상이 걸렸고 빗발치는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로 임시 휴교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20km 근방은 거주 불가능 지역으로 설정되어 8만 명 이상의 주민들





이 강제 이주되었고, 20-30km 지역은 외출 금지 및 자진 대피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어린아이를 둔 가정은 대부분 후쿠시마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진출했다. 재난 이후 후쿠시마 인구의 절반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고령화 사회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은 경제활동 가능한 젊은 인구가 대거로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재난 복구 문제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건 사업까지도 점점 어두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불안이 커져가는 이러한 후쿠시마에 계속 남아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며 섬기겠다는 소수의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회들의 이러한 소리 소문 없는 작은 섬김이 일본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그렇게 후쿠시마는 재난과 함께 멈춰진 발전소처럼 삶의 모든 것이 정지된 저주와 암흑의 땅으로 기억되었다.

이러한 암흑과 같은 시기에 작고 힘없는 교회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겠다고 나서자, FVI는 이 교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 주는 역할”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이러한 “경청의 사역”을 중심으로 재난 구조 전략을 세우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FVI팀은 자세하게 내 소개를 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이미 일본 매스컴에서 한국 내에 일고 있던 방사능 공포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고 외국인들 중 한국인들이 제일 먼저 일본을 떠났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아시아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할 이웃입니다. 일본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땅이 되려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화해해야만 하고 그 일에 지역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나를 더욱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나는 FVI팀의 재난 구조 및 조직 개발 전략 구축 자문으로 또 국제 협력 구성 자문으로 지난 2년 동안 후쿠시마와 서울, 밴쿠버 사이를 오가며 FVI와 후쿠시마 지역 교회들의 협력 사역을 관찰, 자문, 평가하고 다른 나라의 협력기관들과 소통하는 일을 도왔다. 이 일에 관해서, 특별히 후쿠시마 교회들의 이야기는 후쿠시마에 도착한 날부터 중보기도자를 모으기 위해 시작한 블로그 En Route to Fukushima (www.fearnot-fukushima.blogspot.com)에 차곡차곡 다 기록해 두었다. 이것이 지금 한국 DNA 협의회와 일본 FVI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정의 선교, 지역교회 협력”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모델의 시작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 특별한 친구들이 한국교회로부터 직접 배우기를 자청하고 일주일간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2. 우정의 출발점, 서로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기

FVI팀이 도착하고 첫 프로그램은 전철을 타고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와 한국 기독교 순교 기념관과 절두산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일본 교회사에도 16세기 말부터 200년 이상의 천주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박해와 순교의 역사 속에서 뿌리내렸다는 일본 교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에서 26명의 기독교 지도자(20명의 일본인, 5명의 유럽인 사제, 1명의 멕시코 사제)를 십자가형에 처함으로써 기독교도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았고 국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박해에 직면한 일본 교회는 지하교회로, 비밀스런 가정교회로 모습을 바꾸어 가며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17세기는 '크리스천 세기'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후쿠시마(福島), 즉 '복도'는 '복음의 땅'이라는 의미로 17세기 말 일본 동북부 지역에 자리잡았던 기독교 영주가 지금의 후쿠시마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 개혁하고자 바꾼 이름이다. 그러나 한 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강제로 개종당하고 말았다.

3.11의 3대 재난으로 저주의 땅이라는 악명이 붙어버린 후쿠시마가 불과 이삼백년 전 만해도 '복음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리더십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재난 구조 사역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지역 교회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순교의 피 속에서 방사능 오염 지역이라는 불운을 벗게 해 줄 희망을 찾고 그 땅을 다시 '복음의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후쿠시마 미래 선언문 참조).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1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기념관을 방문한 FVI팀이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은 것은 한국의 복음화, 성경 보급 사업에 공헌한 '이수정'이라는 성경번역가의 활동무대로서 일본의 선교



전략적 중요성과 일본교회의 기여를 발견하게 되면서였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현재 일본 선교에 일본교회가 그저 도움을 받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숫자가 적고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미비해 보일지라도, 일본 선교에 있어 또한 해외 선교에서도 일본 지역교회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교회에, 특별히 물량 공세로 점철된 무분별한 선교 방식들이 난무하는 한국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써 깊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추운 강바람을 맞으며 양화진을 떠나면서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에 대한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저녁 일정을 위해 숙소로 돌아왔다.

3. 우정의 실천, 척박한 땅에 사랑의 겨자씨를 심는 일

FVI가 단체 이름을 Friends with the Voiceless International이라고 한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근거한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눈높이를 같이하는 친구의 마음으로 할 때에 진정한 이웃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이들의 사역 철학이다. 경제 대국을 이룩한 일본에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 고령화, 인간성 폐쇄화 등의 사회 문제





들이 드러나면서 물질적 빈곤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정신적·사회적 가난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정신적·사회적 가난은 발전된 선진국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으며, 이제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FVI의 훈련전략은 이러한 정신적·사회적 가난에 대응하여 교회의 크기나 성장 속도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겨자씨로 심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사랑을 남 모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FVI가 3.11 재난 후에 구호 단체는 물론 일본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후쿠시마 지역교회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원리에 근거하여 사역자들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간다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지진과 쓰나미 후 모든 구호 단체와 물자들이 미야기, 이와테로 몰려갈 때 후쿠시마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 중에도 잘 살거나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전사고가 나자마자 떠나버렸지요. 그렇게 버려진 곳, 잊혀진 곳,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 작은 자들, 즉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신세(the voiceless)가 되어 버긴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먼저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을 찾아가 고통당하는 이웃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파악하였다. 그리고나서 다른 단체, 다른 지역교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후쿠시마 현실에 가장 알맞는 재난 대응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재난이 있는 지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후쿠시마 교회들을 연합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힘을 모아 후쿠시마 미래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후쿠시마 미래 선언문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3.11의 3대 재난과 같이 큰 피해를 입은 지역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민초(grassroots)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교회가 밀알로 썩어져 사랑으로 불신 이웃들을 섬기고 차세대를 훈련시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내보내겠다는 결의를 담은 지역교회의 구체적인 지역사랑의 의지의 표현이다.

양화진에서 돌아온 후 일본의 FVI 대표들과 한국 DNA 리더들이 함께 만찬을 통해 지난 2년 사역 과정을 나누고 교제하며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정의 성경번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믿음의 선조들이 담아 놓은 기초 위에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한·일 지역교회 협력과 우정의 사역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였다.





4. 우정이 깊어지는 비결, 서로의 현장에서 다양성을 배우다

앞서 언급한 대로 FVI가 한국을 방문한 주목적은 한국 DNA 운동 10년의 사역 경험을 배워가기 위해서였다.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약 300여 명의 목회자 및 성도들이 비전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주강사 대로우 밀러와 밥 모피트를 통하여 지역교회에 필요한 성경적 세계관과 전인적 사역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지난 10년간 임상 훈련과 적용을 해온 한국의 6개의 모델 교회들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사회 섬김의 현장에서 얻은 열매들을 나누었다.

“빨리빨리”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우리의 민족성이 성급하고 빠르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가 변하고, 지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10년이라는 긴 시간도 모자랐다. 게다가 한국처럼 사회·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아픔과 상처도 독특하다.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서 기적을 이룬 만큼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의 지역교회를 훈련하는 일본

FVI의 사역이나, 급속도로 성장하여 큰 진통을 겪는 한국사회와 교회의 현실이나 모두 지역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1월 25일 금요일 사흘 간의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한국교회 영성의 보고인 소록도를 방문하기 위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출발하였다. 1597년의 나가사키 십자가 처형 사건이나 절두산, 양화진에서 느껴지는 순교의 영성과는 또 다른 성령의 감동을 소록도에서 느낄 수 있다. 말 못하는 서러움과 고통을 품고 살아온 한센인들과 그 이웃들의 모습에서 지난 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격동의 역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감동을 느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자신들의 목소리 없이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우정의 선교’를 더 깊이있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하였다. 그래서 소록도



worldview_11





를 1박2일이라는 짧은 일정의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하였던 것이다.

한국 고등신학연구소 김재현 박사의 안내를 받아 소록도를 한 바퀴 돌며 그 안에 담겨진 눈물과 고통의 역사와 교회사를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처음 소록도에 한센인 병원과 마을을 만든 초기 일본 원장들의 악행과 선행의 흔적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소록도의 역사, 한국의 교회를 통해 일본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전해 들으며, 나와 동행했던 모든 한국인들은 놀라웠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방문해줄 일본 친구들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고 서울로 발걸음을 돌렸다.

결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우정, 가장 고귀한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3-14)”

일주일간 일본의 FVI와 한국 DNA 협의회가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감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



론도 신학 담론의 주제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특별히 유교문화권에 뿌리를 둔 사회, 정치 구조 위에 서구 자본주의의 급속한 물결로 인한 문화적 혼란으로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등 서구 교회가 맞이한 도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숙의 이원론을 배격하고 전인적인 신앙을 갖추어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더불어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든 개인주의 문화를 이겨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셋째는 지역사회 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 존재하는 흑암의 권세(권사와 정세, 엠 1:21)에 어떻게 지역교회들이 함께 대응할 것인가 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국제 정세의 변화에 한·일 지역교



회가 협력을 돈독히 하고 더 깊이 있는 우정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에 우리모두 공감하였다. 일본에서는 원자력 문제, 반핵운동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헌법 9조항인 평화조약을 바꾸려는 움직임과 우경화, 북한 문제 등이 혼란한 국제 정세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선교 전략인, 많은 인력과 재력을 쏟아붓는 마음 없이 행한 일본 선교와 일본교회의 도구화에 대해 지난 모습을 반성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귓전에 강하게 울리고 있다.



박수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리전트 컬리지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2009년에 마친 후에 현재는 리전트 컬리지 마켓플레이스 실천신학 연구소 (www.regent-college.edu/marketplace)에서 비영리 조직 최고 경영자 영성 훈련 및 경영 컨설팅, 연구 및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지역 쓰나미와 원전 사고 이후 재난 구조 관련 국제 비영리기구들의 전략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 재학시절1993년과 1994년에 기학연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공부한 것이 인연이 되어 사회 속에서의 세계관과 교육이 접목될 때에 생기는 문화 영향력에 관심을 엮은 일들을 18년째 하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 복음의 땅

<http://tearnofukushima.blogspot.co.il/2011/07/fukushima-land-of-good-news.html>

나가사키 십자가 처형 사건

http://tearnofukushima.blogspot.co.il/2012_01_01_archive.html

후쿠시마 미래 포럼

<http://tearnofukushima.blogspot.co.il/2011/08/declaration-of-fukushima-future-forum.html>

간다 예수케 목사님(Dr. Kanda) 인터뷰

<http://tearnofukushima.blogspot.co.il/2011/07/fukushima-and-early-church.html>



후쿠시마 미래 포럼 선언문

우리는 일본 동부의 대지진으로 촉발된 후쿠시마의 삼중 재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했다고 믿는다(시 18:6-7).

우리는 특히, 지진과 쓰나미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겪은 후쿠시마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유일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마 6:10) 기도해 왔으며, 후쿠시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현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역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된 후쿠시마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며(사 54:3), 마침내 후쿠시마가 아름다운 자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식물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지역사회들로 편안해질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후쿠시마 현이, 이름 그대로의 의미대로("후쿠"는 좋은 소식과 축복을, "시마"는 땅을 의미함)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역대하 7:14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시 37:7),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다. 우리는 악한 자를 섬길 것이다(마 25:40).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작은 사랑의 행동(겨자씨)으로 사랑을 베풀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뜻하고 신뢰하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그 결과 모든 가족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엄성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세우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로 양육하여, 그들을 교육, 정치, 경제, 미디어, 농업, 과학, 예술과 같은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내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런 삶의 형태로 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이상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상호 학습 및 섬김(엡 4:16)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후쿠시마 미래 포럼의 참석자 32인

우리는 모두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삼중재난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로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코리아마시 반다이 아타미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후쿠시마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다. 후쿠시마 미래 포럼은 FVI가 후원하였고 일본 로잔운동이 승인하였다. 많은 기도와 토의 후에, 32인 참석자들은 위 선언문을 작성하였다.